#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스탠다드란 무엇인가

강성진 | 고려대학교 국제처장

## Ⅰ. 대학 국제화: 글로벌 스탠다드란?

최근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민간과 정부 부문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화라고 하면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가장 광범위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Global Standard)란 고등교육의 목적, 기능(교수/학습/연구/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요소들의 통합 과정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UK, 2007).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화 형태를 학자나 학생들의 국내유입(incoming)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외유출(outgoing)로 볼 것이냐에 따라 보는 시각도 있으나 결국은 두 부문을 모두 합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화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교육의 시스템이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고 선두에 서 있는 국가나 고등교육기관의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자체 교육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선진적인 고등교육체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진적 체제를 갖춘 고등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교육기관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화된 선진적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에 체화되어 우리의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 교육이 국제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대학들이 국제화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IAU(2006)가 각 대학의 국제교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국제화 추구의 가장 큰 이유로 교원/학생의 국제적인 지식 역량 및 지식 생산 능력의 증진을 대상자의 22%가 선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연구, 지식 역량 및 생산의 강화(21%), 국제적인 명성 획득(18%), 학문의 질 향상(14%), 우수 교원/학생 Pool의 국제화(13%)이었고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개발 및 혁신(8%)을 선택하였다.

## Ⅱ.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

Wende(2007)는 최근 각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제화 추이를 네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적 네트워킹(Open Networking),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Serving Local Networking), 새로운 공공 정책

(New Public Management) 그리고 고등교육주식회사(Higher Education Inc.)이다. 이를 하나씩 알아보고 다른 주요 국가들의 세계화 추이를 살펴보자.

## 1. 국제화 추이 형태

국제화 추이 중 첫 번째 형태는 공개적 네트워킹이다. 이는 고등교육이 통합되는 과정을 축약한 것으로 시스템 및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지식, 그리고 재원(교원/학생)의 통합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 Bologna Process를 들 수 있다. Bologna Process란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 교육부장관들의 Bologna Declaration(볼로냐 선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목적은 2010년까지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유럽 각국 고등교육기관 시스템의 통일 및 상호 학위/학점 인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을 주 기능으로 하며, 상호 간 학점인증은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를 사용한다. 학위 체계는 ECTS를 기반으로 1st Cycle은 180-240 ECTS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를 인정해주며, 2nd Cycle은 90-120 ECTS는 석사학위, 3rd Cycle은 ECTS의 제한이 없으며 박사학위 취득 시 적용된다. 통상 각 cycle의 완료까지 각각 3, 2, 3년이 소요된다. 1학년도는 60 ECTS에 상응하며 이는 1,500-1,800 시간에 해당한다. 현재 Bologna Process에는 유럽 4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장관급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두 번째 형태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동현상으로 나타난 고등교육의 지역화 현상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이는 국제화에 따라 활발해진 이민으로 인한 이민자 문제, 국가정체성의 혼란, 지정학적 위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무차별적인 국제화가 아닌 '우호적인' 특정 국가 간 지역화된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 혹은 국제기구에 접근 가능한 대학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한정되므로 대다수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국내 혹은 특정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APRU, U21 등 국제기구가 이러한 소수 대학 간의 연구협력을 위한 기구).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연구협력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APAIE, EAIE 등).

세 번째는 새로운 공공정책이다. 정부의 교육부문 예산 감축, 대학의 자율권 강화 등 일종의 경향으로 교육부문

표 1. **주요 지역별 대학 연합체**

| 기관명 | 목표 | 비고 |
|---|---|---|
| APAIE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고등교육 관계자간의 교류, 협력증진 및 국제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다자간 학생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학 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꾀함 |
| NAFSA | 북미지역 고등교육 관계자 교류협력 증진 모임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국제교육 발전 방안 구상 | – 회원: 10,000명의 전 세계 국제교류 관계자<br>– 매년 NAFSA Conference 개최 |
| EAIE | 유럽 및 국제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구로서,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의 교류 증진을 도모 | – 학생 교류 및 교육의 국제화<br>– 각종 간행물, 포럼, 컨퍼런스 등을 통한 국제화 정책 방향 논의 |
| APRU | 환태평양 국가간 교육, 경제, 기술 분야의 협력 증진을 꾀하기 위함 | – 회원교: 환태평양 16개국 37개 대학<br>– APRU Enterprise, Research Project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협력 진행 |
| Universitas 21 | 학술연구 중심의 세계 대학 선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가입교들 간의 협력과 상호보완을 촉진하여 조직적, 협동적, 기업형 성격을 띤 조직으로 국제화 촉진 | – 회원교: 14개국 21개교<br>– U21 Global, U21 Pedagogica, U21 Equity Limited로 구성 |

※ 주: APAIE: Asia-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EAIE: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이다. 강화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각 대학은 외국인 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며, 이를 위해 타국 교육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을 꾀한다.

마지막은 고등교육주식회사 형태이다. 교육의 교역자유화가 강화됨에 따라(WTO/FTA/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 대상이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는 시나리오이다. 이에 의하면 고등교육 기관은 우수 학생/교원 유치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해외 Branch Office 및 Franchise Education Program 신설 등 교육기관의 법인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례로는 동경대학의 북경사무실, 노팅햄대학의 말레이시아 및 중국 캠퍼스 등이 있다.

## 2. 주요국의 국제화 전략

### 1) 일본

일본은 4년제 대학수가 733개(87 국립대, 76 공립대, 570 사립대), 그리고 2년제 대학수가 374개로 많은 수의 고등교육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등교육 예산은 GDP의 0.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일본의 국제학생 숫자는 2006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118,498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전체 국제학생의 93%는 아시아계이다. 학부 정규학위과정 외국인의 숫자는 2007년 2% 가량 하락하였으며, 1년 이내 과정 학생(교환학생 등)의 숫자는 13% 가량 증가하여 8,368명을 기록하였다. 외국인 학생들은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일본을 선택하게 된 동기로 꼽고 있는데 2005년 기준 일본의 장학 예산은 220억 엔(약 2,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향후 일본의 고등교육정책은 Asian Gateway Strategic Council을 설립하여 2025년까지 외국인 학생 수를 현재의 3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평가하여 대학별 지수를 통해 외국 학생들이 일본 대학을 선택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Singapore Education을 설립하고 2010년까지 국제교육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관으로써 국제 학생들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수학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Singapore Education은 Economic Development Board(EDB)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Singapore Tourism Board, SPRING Singapore,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및 Ministry of Education이 각각 해외 판촉/마케팅, 해외 유수 고등교육 기관의 싱가포르 캠퍼스 유치, 해외 캠퍼스 구축 등의 역할을 맡아 하고 있다.

국제화 방향을 보면 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Global Schoolhouse' 정책으로 현재까지 싱가포르는 20개의 해외 고등교육 기관을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가운데 MIT의 경우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및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등과 연계하여 공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대학원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Business School Insead는 MBA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New York University's Tisch School of the Arts는 film production 및 dramatic writing과 animation 대학원 과정을 제공한다. National Univerity of Singapore 및 Nanyang Technological Univresity,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경우 학부생 14,000명 가운데 20%는 외국인 학생이며, 대학원생은 50%가 외국인 학생이다.

싱가포르는 Singapore Education의 발족으로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자카르타, 호치민 시에 Singapore Education Centre를 두고 있고, 인도의 Chennai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20%의 학생이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NUS의 경우 Overseas

College를 설립하여 Silicon Valley(USA), Bio-Valley(USA), Shanghai, Stockholm, Bangalore 등 산학 연구 허브에서의 학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U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는 국내 학생의 50%를 교환학생/하계 대학/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외에도, 각 대학들은 해외 협력 대학과 공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NUS의 경우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와 Economics and Actuarial 분야에서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는 스위스의 St. Gallen 대학과 경영학 과정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3) 대만

대만은 국제화를 위해 2002년 the Program to Rai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를 발족하였으며, 주 목적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 대학의 국제적 평가 시스템(예, The Times 대학평가) 참여 장려,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강화, 국제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대학의 국제학생 선발 장려 등이다.

주요 국제화 정책을 보면 2005년 "Plan to Encourage Teaching Excellence in Universities" 프로젝트로 정부가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10억 NTD(New Taiwan Dollar)가량의 기금조성을 하였으며, 13개 대학이 수혜자가 되었다. 2006년 이 기금은 50억 NTD로 증가하였다.

"Development Plan for World Clas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of Excellence Project"는 대만 정부가 대만의 고등교육 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00억 NTD의 예산을 배정하여 대만의 명문 대학들이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 수위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의 개혁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국내 고등교육 기관이 세계에서도 수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 정부는 5년 이내에 적어도 단과대학/대학/혹은 대학 간 연구센터가 각각의 분야에서 아시아 Top 10에 들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교육 정책으로 대만은 2006년 교육부 주도로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Project를 발족, 58개 국공립/사립대학에 35억 대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에는 56개 대학에 지급하였다. 국내 고등교육 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on-campus bilingual 환경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다.

### 4) 필리핀

필리핀은 1994년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을 설치하여 기존 the Department of Education은 기초 교육만 담당하고, 고등교육은 CHED가 전담하도록 하였다. 국제화 현황을 보면 최근 몇 년간 in/outbound 교환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파견 학생의 경우 30% 가량이 미국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해외 파견 학생의 75%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일본, 호주,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10개국에 한정되어 파견되고 있다.

주요 정책을 보면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은 자발적인 인증 시스템에 있으나, 오직 13%의 고등교육 기관만이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 시스템은 기관 전체가 아닌 분야별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 대학이 한 분야에서는 'Center of Excellence'로 분류되나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해 필리핀의 경우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국내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 Ⅲ. 국내 대학의 국제화 추세

한국의 'Study Korea' 프로젝트는 교육부인적자원부가 5년 안에 16,000명에서 50,000명의 국제 학생의 유치를 위해 세운 계획이다. 여기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

시아 등 8개 국가에서 한국 교육 전시회를 개최하고,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 확장, 동아시아 학생 유치 집중, 국제 학생 유치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발전, 국제 학생 유치를 위한 각 대학별 노력에 대한 지원과 보상,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학생을 위한 입국요구 간략화, 한국의 대학에서 졸업한 외국인을 한국 기업에서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정책 이외에 세계적 수준 대학의 분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자유경제지역(인천, 부산, 광양 등 6개 지역)과 제주도에 최소한의 규제로 외국 고등교육기관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세제 및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화 평가를 위한 각종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어강의/학술교류협정현황/해외파견 및 국내유치 교환학생 비율/외국인 교원/학생 비율 등이 있다. 참고로 200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상위 30개 대학의 국제화 추이를 보면 〈표 2〉와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동안 각종 국제화 지표에서 모든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상위 30개 대학의 국제화 추이

| | 2006학년도 | 2007학년도 | 증감분 |
|---|---|---|---|
| 외국인교수비율 | 10.50 | 12.23 | +1.73 |
| 외국인학생비율 | 2.25 | 3.50 | +1.25 |
| 해외파견교환학생비율 | 1.08 | 1.49 | +0.41 |
| 국내방문교환학생비율 | 1.73 | 2.71 | +0.98 |
| 영어강좌비율 | 7.17 | 8.51 | +1.34 |

## Ⅵ. 대학의 국제화 전략의 과제와 전망

앞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국제화란 무엇이며 그 동기를 살펴보고, 국제화의 커다란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각 국가들의 국제화 정책을 개관하여 한국의 국제화 전략과 비교하였다. 앞에서 정의하였듯이 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즉, 국제화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중진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저개발국들도 공히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우수한 외국인 교원 확보,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행정 직원을 선발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선진대학의 벤치마킹을 통한 내부 행정절차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노동, 자본(투자), 기술 그리고 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고등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추구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국가 노동력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한다. 이는 곧 교육의 질적 향상이 바로 신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참 · 고 · 문 · 헌


- 강성진, "2008, 대학의 국제화 강화 전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업무담당자 워크숍 발표 자료.
- Marijk van der Wende, 2007,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OECD Countr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Coming Decad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1, No. 3-4, pp. 274-289.
- British Council 2008, "Universities in a Globalized world" 자료.


### 필 · 자 · 소 · 개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계은행 Consultant, 쯔꾸바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기획조정분과)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및 국제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및 논문으로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기술혁신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전략적유치 방안", "A Credit Crunch and Household Welfare: The Case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등 다수가 있다.